

무릉도원을 찾아 북쪽으로

오늘은 북쪽으로 달린다. 이번 여행의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흡스골은 몽골에서 북쪽에 치우쳐 자리를 한다. 점차 목적지가 가까워 온다. 지도를 펼쳐보니 흡스골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무릉까지 길 다운 길은 없다. 하지만 흡스골을 가기위해서는 길 같지 않은 길을 뚫고 일단 무릉까지 가야한다. 여행안내 책에서는 사룬구동 차량만 갈 수 있다는 길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갈 길이 험한 만큼 서둘러야 하는 아침이다. 뜻하지 않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였다. 캠프의 수건이 하나 없어졌다고 변상하라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캠프에서는 수건을 주지 않는다 하여 일행 모두 개인 수건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일행 누구도 몽골에서 수건을 챙겨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급기야 일행 모두의 가방을 뒤져보라고 하기까지 이르렀다.

수건 사건으로 기분도 우중충한데, 하늘마저도 우중충하다. 지난 몽골 여정에선 보기 드문 하늘이다. 온통 구름으로 덮혀 있다. 그렇지만 흐르고 화산 분화구를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차강호수로 넘어기 전 고개에서 어제 저녁에 올랐던 호르고를 바라보았다. 아담한 분화구이다 (사진 1). 분화구를 오를 때와 전혀 다른 느낌의 모습이다. 날씨가 우중충한 것이 너무도 아쉬웠다. 파란 하늘이 배경이 된다면 훨씬 아름다워 보일 것이다. 하지만 완벽한 분화구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마치 제주도의 기생화산의 어린 모습일 것 같다. 제주도의 기생화산에 비하여 분출 당시 바람이 약하였는지 곱게 남아 있다. 제주도의 오름은 한 쪽 방향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다.

고개를 넘으면 바로 차강호수이다. 몽골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모두 칭찬을 아끼지 않는 아



사진 1 호르고 화산 분화구



사진 2 테르킨 차강호수

름다운 장소이다(사진 2). 여느 선진국의 휴양지 못지않은 호수이다. 아마도 물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한 곳일 것이다. 거기에 아름다움이 더해진다. 주변은 높고 낮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길이는 무려 16km, 폭 4km에 이르는 큰 호수이며, 수면이 해발 2,060m이다. 이 호수의 물은 Selenge 강이 되어 바이칼로 흘러들 것인데, 화산이 분출하면서 물길이 막혀 고인 것이다. 호수 주변에는 툰드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유상구조토가 발달하였다. 우리는 이 호수를 따라 서쪽으로 이동한 후 북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한 시간이 넘게 호수 주변을 달렸다. 길은 없고 자동차 바퀴의 흔적이 있을 뿐이다. 사실 초원에선 그것이 길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기서만은 상황이 다를 것 같다. 골짜기 하나를 잘못 접어들면 오늘 하루가 끝장 날 것 같다. 호수로 여러 개의 작은 하천에서 물이 흘러든다. 그 물이 흘러드는 골짜기 중 하나가 우리가 가야할 길인 것 같다. 그러니 자칫 엉뚱한 골짜기로 들어서면 길이 아닌 산으로 오를 수도 있다. 믿는 저리거도 길이 쉽지 않은 것 같다. 이 길로 흡스골에 두 번을 다녀왔다고는 하지만 만만해보이지 않는다. 모든 골짜기를 따라 자동차의 흔적은 남아 있다.



사진 3 무릉 가는 길

호수에 들어서고 한 시간 반쯤을 달린 끝에 호수에서 점차 멀어지기 시작하였다. 높은 산 사이의 초원길을 달렸다. 그것도 잠시 10여분을 달렸을 까, 길인지 자갈밭인지 알 수 없는 곳을 달리고 있다. 어렸을 적 마차를 타고 지나던 고향의 한 길이 떠올랐다. 분명 다른

길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길로 갈까 하는 생각이 여러 번 떠올랐다. '뭔가 사정이 있겠지'를 계속 되뇌었다.



사진 4 무릉 가는 길에 3시간 만에 만난 마을

주변은 온통 몽골답지 않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 숲은 신기하게도 한 쪽 사면만 덮고 있다. 자세히 보면 북쪽 사면에만 숲이 있다. 이 숲을 누군가는 또 몽골답지 않은 풍경이라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잘 못 된 표현이다. 몽골에는 몽골답지 않은 곳이 없다. 모두 몽골다운 곳이다. 다만, 우리가 우리만의 몽골을 머리속에서 그리고 있을 뿐이다. 몽골은 항상 그런 모습으로 있어왔다.

항상 고개 너머에는 희망이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고개 너머로 보이는 길은 희망이라 하기엔 너무 험하다. 가야할 길이기에 어쩔 수 없이 뛰어드는 기분이다. 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사실 여기까지 오면서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하였지만,



사진 5 통나무집 마을

그렇게 30여분을 달렸더니 길이 좀 나아지는 듯하고 멀리 어워가 보인다(사진 3). 일단 맞게 왔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다. 몽골에선 어워가 보이면 사람이 지난다는 것이 분명하니 말이다. 고개에 올라보니 다른 그룹도 지나고 있고, 뒤이어 여러 대의 승합차가 도착하였다. 지나는 푸르공들이 어워를 시계방향으로 돌았다.

돌아가는 것이 더 나아 보였다. 저리거가 거꾸로 간적이 있다 한다. 당시 차가 길을 오르지 못하여 결국 차 따로 사람 따로 지났다 한다. 그 래야 할 것 같다.

길 같지 않은 길을 30여분 더 달렸다. 아침에 캠프 떠나고 3시간여 만에 드디어 마을이다(사진 4). 너무 반가웠다. 아마도



사진 6 유상구조토에 빠진 그레이스

아왔다. 이어지는 길도 그리 험하게 보이지 않았다. 주변은 급사면의 산이지만, 숲도 있고 부드러워 보였다. 드문드문 게르와 통나무집도 있다(사진 5). 이제 점차 고도도 낮아지고 있다. 조금 전 어워의 고도가 해발 2,355m였는데 지금은 1,910m 정도로 낮아졌다. 통나무집이 보이는 곳에서는 이미 해발고도가 1,700m 대로 내려앉았다. 무릉에 이르기 전 중간의 큰 마을이 자르갈란트인데 그곳까지는 무리없이 갈 듯 자동차가 속도를 냈다. 잠시 방심하였을까? 앞에 달리던 차가 수렁에 빠졌다(사진 6). 숲이 우거진 휴양지에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자세히 보니 수렁이 아니라 유상구조토를 넘으려다 빠진 것이다. ‘죽음의 계곡’을 경험한 우리에게 잠시 쉬는 정도로 보였다. 그랬다. 일행의 노력으로 차는 쉽게 빠져나왔다.

10여 분 후 자르갈란트에 도착하였다. 자르갈란트는 이데르(Ider) 강변에 자리잡은 솜의 중



사진 7 자르갈란트의 주유소

몽골사람들도 이런 기분일 것 같다. 지나는 객이 모두 반가울 것 같다. 너무 오랜만에 마주치는 인간이기 때문일 것이다. 마을이라 해봐야 10 가구도 안 되는 작은 마을이지만 몽골에선 결코 작은 규모도 아니다. 마을을 보니 이제 고비를 넘겼구나 하는 안도감이 찾

심지로 꽤 규모가 커 보였다. 이 솜의 인구는 6천명 쯤 된다. 글썄! 강과 큰 마을을 보니 이제 살 것 같다. 솜에선 항상 주유를 한다. 몇 사람이 오토바이와 자동차에 기름을 채우고 있다(사진 7). 이데르 강을 건너 다시 북쪽을 향하였다. 강을 경계로 경관이 확 바뀌었다. 조금 전까지



사진 8 라마탑이 있는 어워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 불태우고 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당분간 이런 날씨와 경관이 이어질 태세이다. 지나는 길에 들른 라마탑이 있는 어워에서는 마치 살이 구워지는 듯 뜨겁다(사진 8).

지나온 길을 생각하면 이미 하루를 더 넘긴 것 같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점심을 먹지 못하였다. 나무 그늘 한 점 없는 이 열기 속에서 점심을 먹어야 한다. 타상발가스(Tsagaan burgas)가 그런 곳이다. 그림자 한 점 찾아보기 어려운 곳에 짐을 내렸다. 바타르씨가 준비한 점심이다. ‘발가스’는 몽골말로 유적지란 의미이다. 유적지라곤 하지만 현장에는 설명문도 하나 없는 곳이다. 그저 허허 별판에 돌무더기로 보이는 것이 전부이다(사진 9). 하지만 아주 중요한 유적지라고 한다. 잘 모르지만, 거란시대의 유적(무덤)인 듯하다.



사진 9 타상발가스(Tsagaan burgas)

숲을 달렸지만, 이제 점차 황량한 경관(몽골다운 경관)으로 바뀌어간다. 그래 누군가는 이것을 몽골다운 경관이라 할 것이다. 그렇게 경관이 극적으로 바뀌었다. 날씨도 그랬다. 조금 전까지 어느 정도 구름이 햇볕을 가리고 선선한 느낌을 갖게 하였지만, 지금은 내리쬐는 햇볕이

점심은 몽흐바 타르씨가 준비한 우리나라의 컵라면이다(사진 10). 몽골에서도 이미 우리나라의 라면이 흔한 음식이 된 것이다. 이 년 전에도 컵라면으로 여러 차례 점심을 때운 적이 있다. 당시는 몽골사람들이 거의 먹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도 잘



사진 10 점심

먹게 된 것이 달라진 점이다. 누군가 반찬으로 준비한 멸치 볶음을 꺼냈다. 몽골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이라고 먹어보라 하였다. 한 마리를 씹어보더니 도저히 먹을 수 없다고 도로 내 뱉었다. 이상하게도 캔속의 참치는 잘 먹었다. 우리가 마른 양고기를 싫어하듯 이들도 말린 생선은

힘든가 보다. 말린 것은 특유의 냄새가 있다. 아마도 못 먹는 음식은 그런 냄새 때문인 것 같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우리도 잡은 지 오래된 양고기를 먹지 못한다. 게다가 바다가 없는 몽골사람들에겐 생선이 낯설기만 할 것이다.

우리가 점심을 먹고 있는 사이 서양인으로 보이는 일행도 이곳을 방문하였다. 아마도 차강호수에서 흡스골로 가는 길에 대부분 들르는 코스인 듯하다. 아무 것도 모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간단한 설명이라도 안내하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모르고 지나면 그만인 듯하다. 지도를 아주 자세히 뒤져봐야 이 곳에 뭔가의 유적지가 있구나 하는 정도이다. 지도에 표시한 위치도 잘 맞지 않았다. 점심으로 한 시간 반 가량을 소비하였다. 다시 북쪽으로

달렸다. 시간은 벌써 오후 3시를 넘겼다.

점심 후 20여분을 달리니 고개가 연속으로 이어졌다. 첫 번째 고개에는 숲은커녕 풀도 자라기 어려워 보이는 바위산이다. 그런 곳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다. 높은 언덕에 게르를 짓고 가축을 키우고 있다(사



사진 11 바위산의 게르



사진 12 북쪽 사면에 발달한 숲

게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시설과 도구이다. 다음 고개(Zoolongiyn 고개, 고도 2,240m)까지 계속 바위산이 이어졌다.

신기하게도 Zoolongiyn 고개 너머로는 경관이 완전히 바뀌었다. 바위산이 끝나고 초원과 숲으로 덮힌 산이 이어졌다. 역시 산의 북쪽 사면으로 숲이 발달하였다(사진 12). 오늘 이후부터 숲과 초원이 반복되었다. 그 어느 지역보다도 숲이 우세하였다. 점차 흡스골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개를 오르는 것은 여전히 곡예에 가깝다. 나는 운전을 즐기지만 몽골에선 고개를 넘지 못할 것 같다. 오르막이던 내리막이던 속도를 줄일 생각은 아예 일찍이 접어둔 사람들이다. 차



사진 13 내리막 고갯길을 질주하는 푸르공

진 11). 저런 곳에서도 살 수 있으니 칭키스칸 시대에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곳에도 있을 것은 다 있어 보였다. 이 동수단 인트력이 있고, 태양열 집열판도 보였다. 아마도 게르 안에는 TV도 있을 것이다.

의 성능이 닿는 대로 달린다. 힘이 세어 보이는 푸르공이 고개를 너머 달려오면 몸이 움찔하게 될 때도 있다(사진 13). 말 그대로 내리막도 질주를 하듯 달린다. 내가 탄 그 레이스도 내리막을 달릴 때면 가슴이 오그라드는 듯하고 숨이 멎을 듯하다. 믿는



사진 14 Shine-Ider 솜

나무로 지어진 집이 꽤 되었다. 마을 너머 멀리 보니 지금까지 고개는 맛 배기인 것 같다. 이제 진짜 고개가 시작될 기세이다. 증명이라도 하듯 마을을 통과하자마자 강한 소나기가 퍼부어댔다. 멀리 새로 시작될 고개에는 더 강력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듯하였다. 주변 산을 따라서 소나기구름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아직도 갈 길은 멀다고 하는데, 적지 않은 자동차가 우리를 추월하면서 고개를 향하여 달렸다. 누군가가 이런 길을 같이 달린다는 것이 마을을 안도하게 한다. 아마도 대부분 무릎을 거쳐 흡스골로 갈 사람들일 것이다.

것은 ‘이 사람들은 늘 이 길을 이렇게 달리고 있지’ 뿐이다.

그렇게 30여 분간 고개를 오르락내리락한 끝에 멀리 Shine-Ider 가 보이기 시작한다(사진 14). 인구 5,000명 정도 되는 솜의 중심지이다. 다른 마을과 달리 이층집도 있다. 주변에 숲이 많아서일까 통



사진 15 끝없는 초원

Shine-Ider를 벗어나고 곧 Bumbatyn 고개에 도착하였다. 고개를 오르는 길이 험하였다. 그에 대한 보상이라도 기대하였지만, 막상 고갯마루에서 보이는 전망은 그리 신통치 않다. 북쪽으로 Zuun 호수가 마음을 설레게 할 뿐이다. 이후부터 한 시간 정도 고개와 숲, 초원이 계속 이어졌다. 숲이 끝날 무렵 초원이 펼쳐진다. 사실,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초원이라고 하지만, 끝이 보이질 않는다. 자동차를 타고 달리고 달려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사진 15). 그 길이가 20km를 넘었다. 초원이 끝나면서 다시 산과 고개, 숲이 이어진다. 오늘은 숲을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날인지 모르겠다. 오늘의 종착지인 무릉에는 저녁 8시 40분에 도착하였다. 위도가 높아서인지 해는 아직도 붉은 노을을 남기고 있다. 무릉은 몽흐바타르씨의 고향이다.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되는 내일이다. 오늘 밤은 캠프가 아닌 호텔이다. 몽골에선 호텔보다 캠프가 훨씬 운치가 있는 것 같다.